



<목련경>과 <신곡>을 모티브로한 '목련, 아홉 번째 계단으로'의 한장면

'지구살리기' 불교환경음악회 눈길

니르바나 필하모닉, 1월 25일 예술의 전당서 신년음악회 개최

음악을 통해 환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보존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는 사단법인 미래숲(대표 권병현)과 함께 1월 25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지구살리기 환경음악회'를 개최한다.

강형진 단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환경에 대해 무신경해왔다. 지구가 처한 현실을 바로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미래숲과 손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니르바나 필하모닉은 공연을 통한 수익금 전액을 미래숲의 '사막에 10억 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공연 당일에는 대중교통 이용, 머그컵 사용 등 미래숲의 지구살리기 실천인증 사진을 미래숲 홈페이지(www.futureforest.org)에 올리면 티켓을 현장에서 50% 할인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일반인들의 환경인식 개선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의 지휘는 동양인 최초로 미국 메이저 오케스트라에 진출하고 KBS교향악단의 악장을 역임한 김의명 음악감독이 맡았다.

공연에는 2006년 대원문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강형진 단장, 한양대 음대교수 소프라노 박정원, 제3회 차이코프스키 청소년 국제 콩쿠르에서 최연소 2위를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2009년 몬트리올 국제제10회 콩쿠르 1위를 수상한 리코더 권민석, KBS교향악단 단원을 역임했던 트

럼펫 임시원 등 국내외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유명 연주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공연은 지구환경보호를 테마로 삼았기에 자연과 친숙한 바로크 음악들이 주를 이룬다.

>헨델의 '수상곡' >요한 파헬렐의 캐논번주곡 >파가니니의 '라 캄파넬라' >비발디 사계 등이 선보인다.

강형진 단장은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999년 창단 이후 클래식과 한국의 전통적 음색을 온합해 새롭게 창조된 한국적 클래식 음악 보급과 세계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음악을 통한 문명의 순화를 창단이념으로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하고 가치 있는 삶을 발견하게 하는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니 이번 공연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냐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단법인 미래숲은...

(사)미래숲은 사막화를 방지하고 환경인재를 양성하는 비정부기구(NGO)이다. 미래숲은 2006년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다라타지 현지 정부와 3차 협약을 체결하고 산림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SK, 대한항공, 경기도, 경상남도, 녹색사업단 등과 함께 함께 내몽고 쿠부치사막에 56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길이 16km, 폭 0.8km에 이르는 방풍림을 조성해 오고 있다. 미래숲의 조림 활동은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 받아 미래숲의 권병현 대표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초대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챔피언 및 녹색대사'로 임명된 바 있다.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 일반인에 공개

2월 5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서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실 도서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정종수)은 일본 공내청 소재 조선왕조도서의 환수를 기념해 '다시 찾은 조선왕실 의궤와 도서'전을 2월 5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공내청에 보관돼 있다가 구랍 6일 1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조선왕조 도서 150종 1205책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에는 1965년 한일문화재협정부서 최근까지 환수된 대표 문화재와 관련 영상물도 전시돼 국외 유출 문화재 환수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게 했다.

1월 12일 오후 2시에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의 <일본 공내청 서릉부 소재 조선왕실 도서의 환수 과정과 의의> 특별강연이 열린다.

또한, 어린이 대상 전시 해설과 주말 가족대상 프로그램도 준비해 일반 가족 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02)3701-7500

이냐는 기자

풍경소리, 어린이 찬불가 보급한다

제5대 회장 덕신 스님 취임사료

'좋은 벗 풍경소리'가 제5대 회장에 덕신 스님(사진)을 선출하고 구랍 2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취임법회 및 붓다콘서트를 개최했다.

덕신 스님은 취임법회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찬불동요를 불러 찬불가가 대중 속에서 힘을 키울 수 있길 바란다"며 "불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실시할만 동참해 일반 방송에서도 찬불가가 나와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신 스님은 1969년 출가해, 1987년 동국대를 졸업하고 조계종 포교국장·사회국장·문화국장·총무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계사 장애인포교단체인 원심회를 창설, 회장을 지냈다. 현재 대구대륜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김세연 어린이와 짜마풍경이 풍경소리가 최근 발표한 창작 찬불동요집 '풍경소리 33집' 수록곡 이 발표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냐는 기자

경전사경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내지: 70장 자연색메트지
제본: 한장본 실제본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라니 / 춤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구성: 한지날장
크기: 636mm×313mm

한지백팔사경 5종

26호 신묘장구대라니(한글) 27호 반야심경(한문)

29호 춤부다라니(한글) 30호 반야심경(한글)

28호 대불정능엄신주(한글)

※ 26, 27, 29호, 30호는 사경책 1권을 사경하시면 108번 사경이 됩니다. 단, 내용이 많은 28호 능엄신주사경책은 4장 1조로 구성되어 책 1권에 27회 사경할 수 있으므로 총 4권을 사경하셔야 108번 사경이 됩니다.

할인가 14,000원(10권 이상) 정가 20,000원(1권)

내지: 한지 108장 표지: 레저크지 읍셋 4"
제본: 한장본 실제본 크기: 435mm×300mm

사경지

반야심경 탐사경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가 200원

구성: 한지날장
크기: 636mm×313mm
종류: 한문,한글

부라다케 붓펜 입하

★사경용 금분액

한지인쇄대길(大/2도)

할인가 12,000원 大(10×43cm) 10,000원 2도(7×30cm)
포장: 100매 비닐포장

경면한지 불삼재제품

할인가 6,000원
포장: 100매 비닐포장
크기: 10×15cm / 9×14cm

광명진언

할인가 1,200원(100권이상) 정가 2,000원
크기: 12×18.5cm
내지: 80메트지(64p)

삼배 삼재제품

할인가 800원(200개 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

경면한지 불삼재제품

할인가 1,000원(200개 이상) 정가 1,200원
포장: 봉투 삽입

한지 삼재제품

할인가 700원(200개 이상) 정가 900원
포장: 봉투 삽입

금강경달라니

할인가 180원(600개 이상) 정가 250원
포장: 봉투 삽입

[인간한지]금강경달라니

할인가 400원(450개 이상) 정가 600원
포장: 봉투 삽입

신년맞이기도부

할인가 800원(200개이상) 정가 1,000원
포장: 봉투 삽입